

새롭게 거듭난 사오정

- 이 름 : 봉 중 근
- 주민번호 : 600401-*****
- 주 소 : 인천시 남구 *****
- 연 락 처 : 011-9906-****
- 훈련기관 : (인천)현대CAD건축인테리어학원
- 교육기간 : 2002. 11. 29 ~ 2003. 3. 28 (4개월)
- 교육과정 : 전산응용건축제도 (건축인테리어CAD)
- 취 업 처 : (주)화신목재 (032-883-7234)

올해 나이 45세로 중학교 때부터 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테니스를 시작하였으며 체고를 거쳐 K대 체육교육학과를 졸업하였다. 학교생활 내내 오후에는 운동이 주 일과였고 합숙훈련에 시합준비를 할 때면 오전수업 마저도 빠져야 할 때가 많았다. 친구들은 한참 공부할 시기에 저녁 보충수업은 물론 정규수업 마저 빼먹을 때가 많아서 정작 수업시간에 들어가면 즐기 일수였고 반 친구들과도 쉽게 어울리지 못했다. 그런 나에게 선생님들도 별다른 말씀이 없었으며 운동선수는 운동만 잘하면 된다는 식이었다.

각종대회에서 수상경력은 있었으나 국가대표 선발과정에서 매번 좌절감을 맛보았고, 체육교사로 일부활동도 하였으나 서서히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다.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고 자식도 생기고 나니 먹고살기 위해 무엇이랴도 해야 했었으나 배운 것이 운동 밖에 없어 쉽게 무엇인가를 할 수가 없었다.

그러던 차에 인테리어 전원주택 붐이 일기 시작했고 통나무건축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건축에 대해 아는 것이 전혀 없었기에 일단 현장 막일부터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작은 건축회사에 입사하게 되었다. 일은 많이 힘들었지만 운동을 했던 몸이라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다. 2년 여 가량을 배우고 나니 일에 대해선 큰 어려움이 없었으나 눈으로 배운 것이 전부인 나에게 항상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었다. 거래처 사람들과 대화함에 있어 도면을 볼 줄 몰라서 애를 먹었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무엇인가를 설명하기에는 도면이나 스케치 표현능력이 부족했다. 간단한 계약서나 견적서 작성 또한 컴퓨터를 모르는 나에겐 쉬운 일이 아니었으며 항상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해야만 했다. 고객들 또한 무자격자인 나의 말을 신뢰하고 믿어 주지 않았다. 공부의 필요성은 일찌감치 느끼고 있었으나 당장 먹고 살 일이 걱정되었고 늦은 나이에 공부를 한다는 것 또한 자신이 없었다.

그러던 차에 건축경기가 악화되면서 다니던 회사에서도 구조조정이 있게 되었고 단순직에 불과했던 나는 본의 아니게 퇴사를 하게 되었다. 집에서 쉬게 되면서 가족들 눈치도 보아야 했지만 무엇보다 내 자신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나를 더욱 비참하고 힘들게 했다. 모두가 힘든 가운데 집사람이 많은 용기를 주었고 그 동안 부족하다고 느꼈던 건축의 기초와 설계에 대해 공부를 해야겠다고 마음먹게 되었고 "고용안정센터"를 통해 "현대CAD건축인테리어학원"에 국비지원서를 제출하게 되었다. 집에서 가까운 것도 있었지만 주변사람들의 평가도 비교적 좋았으며 무엇보다 내가 원하는 교육과정들로만 묶어서 기초부터 가르친다는 말에 용기 또한 얻었다.

지원하면 무조건 되는 줄만 알았는데 정작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해서 가보니 지원자들이 넘쳐 났고 적성테스트며 꼼꼼한 면접을 보고 나니 과연 나같이 나이가 많은 사람을 뽑아 줄까 하는 걱정부터 앞섰다.

집에 돌아와 조바심을 내며 기다리고 있던 차에 합격자발표가 났고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말에 무척이나 설레이고 기뻐했던 기억이 난다.

처음에는 무료교육이라 하여 대충하지 않을까 걱정했으나, 지루하기 그지 없는 수업을 선생님들은 재치를 살려 가며 처음 접하는 사람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재미있게 열강을 해 주셨고, 지각이나 결석을 할 때면 무서울 정도로 혼을 내시는 등 학원이라고 하기보다는 학교생활에 가까운 모습이었다. 의욕은 누구 못 지 않았지만 반에서는 내가 제일 연장자였고 건축은 물론 컴맹이나 다름이 없었던 나에게 교육과정이 마냥 즐겁고 재미있는 것만은 아니었다. 수업시간이면 선생님들 붙잡고 같은 질문을 반복해야 했고, 수업시간은 물론 집에 와서 까지 책을 보며 씨름을 해야 했다. 혹시라도 나이가 어린 반 학생들에게 누가 될까 행동 하나 하나에도 부담이 되었다.

차차 노력이 쌓여 가면서 그 동안 현장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알고 있던 것들이 건축의 구조, 재료, 디자인원리 등을 배우면서 이론적인 체계가 잡히기 시작했고, CAD설계와 투시도 스케치를 배우면서 자신감도 생기기 시작했다. 학원생활에 익숙해 질 때쯤 되서는 경제적인 문제로 중간중간 결석이 생기게 되었고 그 때마다 선생님들은 못들은 수업의 프린트 자료들을 일일이 챙겨 주시면서 내가 무엇을 보충해야 할지를 체크해 주셨고 내가 4개월 기간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다. 이렇듯 주변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가면서 처음 목표로 한 실내건축은 물론 전산응용건축제도 자격증 2개를 모두 취득하게 되었고, 수료 전 MAX 기초교육 및 포트폴리오를 준비하면서 취업준비를 위한 실무적용 능력도 키워 나갔다.

수료 후 어려운 조건과 불경기에도 불구하고 고용안정센터 및 학원을 통해 여러 곳에 면접을 보게 되었으며, 이제는 어디를 가야할지 행복한 고민을 하게 되었다. 여러모로 생각한 끝에 과거경험과 현재의 능력, 발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주)화신목재에 재취업을 하게 되었다.

(주)화신목재는 건축자재납품을 주로 하는 회사였으나 리모델링 이 활성화되면서 건축 및 인테리어 파트를 신설하여 전체업무를 이끌고 나갈 파트장을 모집 중 이였으며, 그 동안 실업자재취직훈련을 통해 배운 설계능력은 물론 사회적인 연륜과 지난날의 작은 현장경험이 입사에 크게 작용했던 것 같다. 현재의 직장에서는 시공업무는 물론 그 동안 손대지 못했던 설계업무와 인터넷 및 워드를 이용한 서류업무까지도 척척 해냄으로써 내 자신의 존재가치를 인정받고 있으며,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상담업무도 맡고 있어 폭넓은 부분에 대해 다양한 경험을 쌓고 있다.

4개월 동안 열심히 배웠다고는 하나 아직은 배워야 할게 더 많고, 특히 3D 설계가 많이 부족하여 조만간 "재직자 향상교육"을 통해 다시 한번 배워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 우선은 현재의 직장에 최선을 다하고 좀더 많은 경험을 쌓은 후에는 작으나마 독립을 하고 싶은 포부도 가지고 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과거 실업이라는 최악의 시기에 주저앉지 않고 자기개발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지금에 와서는 되려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힘들고 부족했던 저를 여기까지 있게 해주신 "노동부 직업능력개발" 관계자 및 인천 "현대CAD건축인테리어학원"선생님들께 무한한 감사와 발전을 기원하며, 저와 같이 실업의 고통속에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사오정세대의 모든 사람들이 보다 폭넓게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04. 4. 20

작 성 자 : 봉 중 근